



5년차 접어든 2호선 공사... “교통 불편 언제쯤 풀리나”

(광주도시철도)

1단계 상반기 40%·하반기 60% 지상 공사 마무리 방침
복공판 걷어낸 뒤 포장...내년 초 지상도로 정상화 전망

5년 차에 접어든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언제쯤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40%, 하반기엔 나머지 60% 구간에 대해 복공판을 걷어낸 뒤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등 지상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내년 초에는 광주시 내 지상도로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9년 9월 착공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지난 1일

구 입구 사거리-광주역(3.141km)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저심도 개착공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착공법은 도로를 굴착해 지하에 구조물과 정거장을 짓고 흙을 되메운 뒤 복공판 설치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복공판을 해제하고 그 자리를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공사 방식이다. 현재 지하 본선 구조물 공정은 65% 가량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과정에서 도로 전체 차로 중 절반을 점용하고 남은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게 했지만 공사 구간 변경에 따른 잦은 교통 흐름 전환으로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광주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에 대해 1차 임시포장 격인 기층을 포장(20cm)한 뒤 포장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 기층 포장 5cm 정도를 걷어 내고 재포장하는 표층 포장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1공구 SC제일은행-상무역교 ▲2공구 풍금사거리-송촌과 인일 아파트 ▲3공구 화정 엘리체 앞 사거리-월드컵 경기장 삼거리, 풍암 대주 웨슬리신협-미래아동병원, LG베스트샵-명지맨션 ▲5공구 살레시오 사거리-공계천로 사거리 ▲6공구 산수오거리-두암지구 입구 삼거리, 안보회관-광주역 다사로움 앞 등 전체 구간 중 40%인 9곳에 대해 도로 포장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15곳에 대해서도 도로 포장을 마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백운광장 주변 지하차도 구간과 자재 적치·지하 공사를 위한 작업구를 제외하고 공사 구간 내 95% 이상 주요 도로를 포장, 복구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 본부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의 교통 인프라와 시민 생활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민들도 공사 기간 중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공사 구간을 우회하며 서행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도로 막은 지하철 공사장 교통 불편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지난 1일 기준 71%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구 풍금사거리 인근 공사 현장. /김예리 기자

‘5자 회동’ 무산 위기 의대 공모 불씨 살릴까

도, 공개불가철회 ‘용역 요약본 제공’...원본 열람도 검토
기존 용역 결과 공개 요구해온 순천지역 후속 대응 관심

전남도가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김영록 지사와 목포대·순천대 총장, 목포시장·순천시장 간 의대 문제 5자 회동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전남도가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의대 관련 기존 용역 결과에 대해 ‘요약본’을 제공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특히 전남도는 용역 결과물 ‘원본’의 경우 목포와 순천 양 지역의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어서 공모에 반대해온 순천지역의 5자 회동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8일 “순천대 총장과 순천시장이 5자 회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용역 결과 요약본을 인센해 제공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체 용역 결과의 경우 순천과 목포 양 지역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늦어도 9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전남도의 입장 변화는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이 5자 회동 불참 방침을 분명히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장과 노 시장,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은 전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기존 의대 유치 관련 용역 결과 공개 ▲구체적인 기준·지표 명시한 공모 방안 공개 ▲탈락 지역 건국권 침해 대책 제시 등 3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모·회동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용역 결과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순천지역의 5자 회동 불참으로 이어졌다. ▶2면에 계속 /김재정 기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지개’

진에어, 울란바토르·제주 정기 취항
제주항공, 지난달 제주노선 운항 시작

국제선·국내선 정기노선의 잇따른 취항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전남도는 8일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무안-목포 울란바토르 국제 정기노선과 제주 정기노선을 취항했다”고 밝혔다. 취항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박병률 진에어 대표, 서삼석 국회의원,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 지역 아동으로 구성된 ‘무안 꿈의 오케스트라’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진에어의 무안-목포 울란바토르 노선은 매주 수요일(오전 7시30분)·토요일(오전 7시30분) 무안공항을 출발하며, 제주 노선은 매주 목요일(오전 8시10분)·일요일(오전 8시10분)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한다. 전남도는 이번 정기노선 운항을 위해 지난 3월 도청에서 진에어, 무안군, 한국공항 공사가 참여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기노선 업무협약을 한 바 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난달 22일 도청에서 업무협약을 해 구성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협의체’에서도 무안-울란바토르, 무안-제주 정기선의 성공적 운항을 위한 정기선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진에어는 최소 2대 이상 항공기 정지장을 무안국제공항으로 등록해 지역 경제 발전에 협력할 계획이다. 운항 노선 다변화를 위한 협정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정지장은 항공기를 등록한 장소로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납부한다. 앞서 제주항공도 지난달 28일 무안-제주 정기노선을 4년만에 재취항했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많은 관광객과 기업이 유입되고 서남권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진에어와 한국공항공사, 도민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합창단 세계대회 참석 ‘실왕실래’ 6면
5·18왜곡·편해 게임 제작자 고발 6면
광주FC, ‘달구벌 무패’ 잇는다 1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전광판 사진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